“청소년기 자기수행, 인생의 전환점”

정광학원,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초청법회



불교종립 정광학원(이사장 원일, 미륵사 회주)은 2월 17일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초청법회를 교내 룸비니관에서 봉행했다.〈사진〉

방학기간중인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1000여 명의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요식과 초청법문이 이어졌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수많은 정보를 늘 접하는 시대에 자신의 중심을 잡을 수행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주신 싯다르타 태자는 자신과 삶의 성찰을 통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청소년기의 자기수행은 자신 인생의 큰 전환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광중 · 고등학교는 광주지역 유일의 불교종립학교로 1946년 백양사 만암 스님의 원력과 전라지역 5개 교구본사 등 사찰 출연으로 세워진 학교다. 이날 법문을 한 지선 스님의 모교이기도 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리불교대학 졸업법회 봉행

2월 19일, 졸업생 9명 배출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관음사 주지) 불기2560학년도 졸업법회가 봉행됐다.〈사진〉

2월 19일 익산 관음사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송동기 부학장, 오창록 능인회장, 류우상 익산불교신도회사무국장, 가릉빈가 합창단과 졸업생 가족, 동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김숙자 불자 등 9명이 1년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과 ‘부동’의 신도품계를 수지했다.

학장 덕림 스님은 “부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태해지지 않고 자기계발과 지속적인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불교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지혜의 눈을 뜨고 원력을 발휘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리불교대학은 새로운 운영진을 구성해 발표했다. 새 운영진인 김진수 고문, 송동기 부학장, 정정원 기획실장, 서훈석 교무, 김용수 학생처장, 방신영 홍보위원 등이 이리불교대학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익산지역 유일한 신도전문교육기관인 이리불교대학은 지역 불교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까지 총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흥 보림사 “풍력발전 건설 반대”

관계기관에 탄원서 제출

한국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장흥 풍력발전 건설사업과 관련해 구산선문 종찰 장흥 보림사(주지 일선)와 지역주민들이 장흥풍력발전설치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풍력발전 건설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장흥 보림사 주지 일선 스님과 풍력발전반대 대책위는 최근 관계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서부발전주식회사는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장흥풍력발전건설사업 허가 심의를 신청했다”며 “장흥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보림사, 장흥다목적댐,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조망되는 스카이라인 훼손 등 경관적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육상풍력발전 시설은 이미 전국적으로 폐해가 드러나고 있고 기 설치돼 운행되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파괴, 소음과 저주파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수명이 다한 20년 후 복원방법과 소요 비용 등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될 것이 자명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후손들의 몫이 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등 · 합창제, 전북 봉축행사 ‘풍성’

전북 봉축위원회, 4월 4일부터 한 달간
연등만들기 대회 · 골든벨은 쉬어가기로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전북지역 봉축위원회가 구성되고, 주요 봉축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2월 18일 전북불교회관에서 봉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봉축행사 계획을 확정했다. 전북 봉축위원회는 조계종 · 태고종 · 보문종 · 용화종 · 총지종 등 주요종단 대표자들과 각 사찰 주지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전북지역 신행단체장들로 구성됐다.

이날 봉축위원회는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봉축표어에 맞춰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연등축제를 비롯한 봉축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올 봉축행사는 약 94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주요행사 계획안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전주 주요도로에 봉축 가로연등을 내걸고, 유동 인구가 밀집되는 도로변에는 선전 홍보탑을 세워 봉축행사를 대중에 알릴 계획이다. 이어 8일 전주종합경기장 앞 광장에 봉축기원탑을 점등하고, 15일에는 전북어린이 큰잔치와 전북불교합창제, 행복바라미 문화축전이 전주 덕진공원서 열린다.

4월 8일 봉축기원탑 점등
각종 불교문화행사 비롯해
군법당 · 교도소 위문법회도

또 29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통문화체험 행사와 대규모 봉축 연등축제가 봉행된다. 이날 연등축제에는 다양한 전통등과 불교문화행사가 열려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도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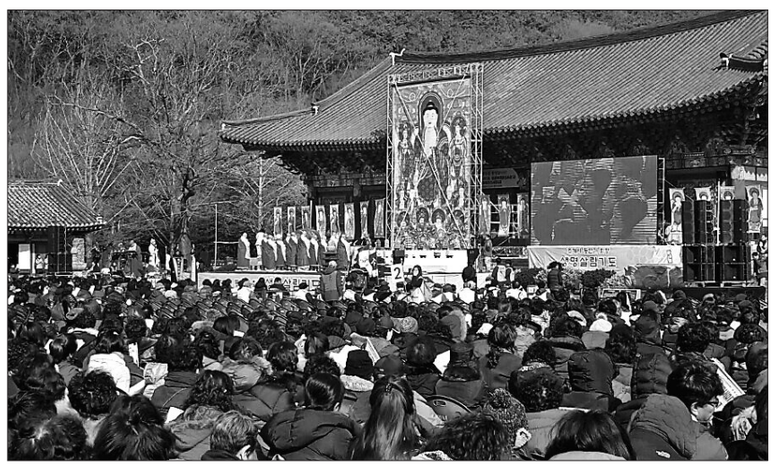
특히 4월 27일부터는 제6탄약창 연등제를 비롯한 각 군법당, 교도소,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한 위문법회도 봉행된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3일에는 각 사찰별로 봉축법요식이 봉행되고, 5월 27일 청소년 모악축제를 끝으로 봉축행사는 마무리된다.

다만 지난해 개최된 연등만들기 대회와 청소년들의 불교상식을 겨루는 ‘도전 골든벨’은 올해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로 연등 게재 시 이웃종교를 배려해 이웃종교 시설 인근에는 연등을 달지 않기로 정했다. 전주지역의 봉축 연등축제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군산, 익산 등 전북 주요도시의 봉축행사 일정도 이에 맞춰 봉행된다.

전북 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올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소외계층을 두루 포함해 부처님이 오신 참뜻을 되새기는 경건하고 여법한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뭇 생명의 존귀함 가슴에 담자”

서울 조계사, 금산사서
생명살림기도법회 봉행



2월 19일 김제 금산사서 봉행된 생명살림기도법회.

동안거 회향을 맞아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생명살림기도법회를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했다.

2월 19일 금산사에서 봉행된 생명살림기도법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동영 · 유성엽 · 김광수 · 김종회 · 정운천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들과 5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생명살림기도법회는 상단불공에 이어 지현 스님과 내외빈 인사말, 방생의식, 도량참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보물 제25호인 금산사 적멸보궁 5층 석탑의 사리 친견과 미륵장육삼존불입상의 철수미(鐵須彌)대좌를 친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생명살림기도법회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에 의의가 있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비의 종자를 키워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고통 받는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법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가 하나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미륵불이 이 세상과 금산사에 하생해서 모든 중생들 구원하는 불국토의 모습이다”고 말했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상처 입은 야생조류 32마리를 치료해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액운을 막아준다는 말똥가리 2마리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5마리, 가정의 화합을 의미하는 꿩 20마리, 평화를 상징하는 흰비둘기 5마리가 사람들의 손을 떠나 하늘로 힘차게 날아갔다.

한편 생명살림기도의 정점인 방생(放生) 의식은 다치거나 죽을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려주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일로 불교에 큰 의미가 있다. 조계사는 해마다 하안거와 동안거 해제일에 맞춰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명살림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환경연대 청소년리더십캠프

발우공양 · 명상요가 등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느끼고 체험하는 불교캠프가 열렸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2월 11일부터 선덕사, 무등산 등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제4회 청소년리더십캠프’를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2월 11일 오후 선덕사서 집결한 후 입재식과 레크리에이션, 발우공양(지도 효진 스님), 강연, 108배, 명상요가, 게임 등이 진행됐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2일 청소년 40명과 지도교사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효사에서 꼬막재, 규봉암, 장불재, 입석대, 서석대, 중봉, 동화사터, 원효사에 이르는 10km의 겨울산행이었다.

주최 측은 “학업과 휴대폰에 매몰됐던 청소년들이 무등산 정상에 올라 설경을 보면서 느꼈던 환희로움과 오르내리며 느꼈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큰 배움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용문사, 자비의 쌀 전달

광주 두암동 용문사(주지 성종)는 2월 20일 신도들이 동안거 새해기도 회향을 맞아 십시일반 모은 쌀 1000kg을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에 기탁했다.〈사진〉

이날 전달한 쌀은 100일간의 기도를 통해 신도들 염원을 담은 자비의 쌀로 북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세대에 전달된다.

용문사 주지 성종 스님은 “정유년 한 해에도 늘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신도들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장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